

조기 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방향 -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

김해겸 · 차호순

(경기과학교) (아주대학교)

Kim, Hae-Gyeom and Cha, Ho-Soon. (1997). The current state of early English education and its more desirable direc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 3, 141~183.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early English education in the world(including Korea) and to suggest its more desirable direc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EFL in elementary schools of Korea.

In fact English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of Korea has been put into practice as an extracurricular activity since 1982. But in 1995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claimed a policy to establish a TEFL program as the regular course in elementary schools of Korea since 1997.

In this connection, the writer surveyed several kinds of theories about early English education to verify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Korea's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The logical result from these theories is that younger children are better equipped to learn foreign languages with efficiency than older children or adults. However, as most studies are based on logical inferences rather than on direct observation or experimental evidence, we are not sure that those theories are right.

In this view, the writer put stress on the prepar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s to establish a more desirable direction of ear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since Korea's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will be practiced under EFL environment, not ESL environment. The writer also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educational finances, the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and its content, teaching materials(textbooks and tapes), English teachers, teaching methods, evaluation, educational facilities.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have to try to solve these problems to succeed in a TEFL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of Korea and suggests several things for a more desirable direction of Korea's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짐에 따라 이른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제어로서 영어는 단순한 교양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공간을 지구상에 확대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라디오 방송의 60%, 전세계 우편물의 70%, 전세계 전화 통화의 약 85%, 전세계 약 7억대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고(Naisbitt 1993:23), 1982년을 기점으로 세계 정보의 약 85%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추정한다(Kaplan & Ostler, 1982). 심지어 김종자(1997)는 미국 잡지 퓨처리스트(Futurist)의 말을 빌어 "정보기술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 문화가 나타나면서 21세기에는 세계 언어의 90% 이상이 소멸될 것이고, 국제어로서 영어의 지배력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영어는 학문, 지식, 통신, 교역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이 되었고,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영어교육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¹⁾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근 몇 년동안 영어교육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1994학년도부터 과거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던 대입학력고사가 의사소통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한 수험능력시험으로 바뀌었고, 교사 임용고시 및 사회의 취직, 승진시험에서 영어회화능력이 반영 되었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영어 교육과정 개편

1) 일례로, 일본의 경우 4,000명 정도의 원어민을 교실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연중 5,000~6,000명 정도의 영어교사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있다(최진황, 1995).

이 이루어졌고,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영어교사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다(임병빈, 1996).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100년이 넘는 한국 영어교육사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고 또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외국의 초등학교 외국어교육은 19세기에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문제로 인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가르치던 사례까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초등학교 외국어(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이하 FLES)교육 프로그램은 1952년에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1954년 유네스코(UNESCO :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가 주최한 「현대 언어교수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the Teaching of Modern Languages)」에서 FLES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공감한 이래 활발해 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1962년에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에서 개최된 유네스코회의에서 FLES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면서 번성하게 되었고, 이어서 프랑스, 스웨덴, 소련,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FLES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뒤따랐다(이재희, 1995:37).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정규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시기로 앞당기자는 제안이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당시에 FLES교육은 시기상조라는 대세속에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던 중, 1981년 10월 13일 교육부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1982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특활시간에 주당 1시간 정도로 희망하는 아동에게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FLES교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별다른 정책변화가 없었고 사회의 변화와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조기 영어교육이 극성을 부려 그릇된 영어교육과 사교육비의 증가 등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교육부는 1991년 9월 8일 「국민학교 영어특활 운영지침」을 발표하여 국민학교 3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학교재량시간에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2년 9월 30일에 고시된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주당 1시간의 학교 재량 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시간에 상급 학년의 정규 선택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초에 대통령령의 특별지시로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교육실현을 표방하면서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은 19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를 가르칠 것을 제언하여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정·공포(교육부 고시 제 1995-7호)됨으로써 1997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1998년에는 3, 4학년, 1999년에는 3, 4, 5학년, 2000년에는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주 2단 위씩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쪽으로 나뉘어져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이재희, 1995 ; 배두분, 1995), 현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리이며, 무리한 교육이 오히려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우남희·이종희, 1996).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부담 때문에 3학년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동아일보, 1996. 10. 14).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 조기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기정 사실화되었고 찬반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 많은 문제점과 준비상의 미비점이 있지만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한국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조감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기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세계의 조기 영어교육 동향을 조사해 보고, 조기 영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 한국 조기 영어교육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기 영어교육의 의미

'조기 영어교육'이라는 용어는 성인 영어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그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기 언어교육(Early Language Learning : ELL)'은 이중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 제2언어 교육(second-language instruction), 외국어학습(foreign-language learning)등에서 12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사용된다(Rivers, 1981:462). 미국에서는 '조기 외국어교육'을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FLES(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FLEX(Foreign Language Experience), Immersion Progr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두본(1995)은 '조기 언어교육'이란 초등학교의 영어교육(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TELES)이라는 의미로 간주하여 '조기 영어교육'과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이완기(1996)는 '조기 영어교육'을 7세 이전에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으로 간주하고 초등학교 학생의 영어교육을 '초등영어교육' 혹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이라하여 둘 사이를 뚜렷이 구별하고 있으며, 이혜란(1995)은 취학전 아동수준에서 초등학교 상급 아동 수준까지의 영어교육을 '영어 조기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명호(1989)는 언어적 사춘기(linguistic puberty : 약 12세)가 언어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여 2세부터 12세까지의 외국어 교육을 '조기 외국어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필자는 두가지 이유로 12세 이하에서 실시되는 모든 영어교육을 '조기 영어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중학교부터의 영어교육은 성인 영어교육에 속하므로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조기 영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는 언어교육에서 신경생리학상 언어습득의 결정적시기(critical period)가 사춘기 이전에 해당되므로 2~12세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교육을 '조기 영어교육'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II.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외국어를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 측면에서 꽤 오래동안 의견이 엇갈려 온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도 그 찬반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명백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Stern(1983:361)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외국어를 쉽게 배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찰되어 왔고, 그래서 Erasmus, Montaigne, Locke같은 사람들은 대체로 조기 외국어교육을 찬동하는 입장이었다. 1950~60년대에 와서 이러한 이론은 '최적 연령설(optimal age theory) 등의 조기 언어교육론으로 제기되었다.

조기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거는 Chomsky(1965)의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이하 LAD)이론, Penfield & Roberts(1959) 그리고 Lenneberg(1967)가 주장한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론(critical period theory), Brown(1980)과 Krashen & Terrel (1983)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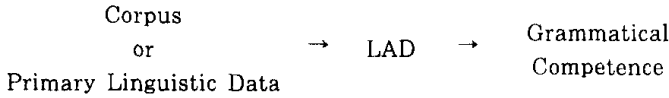
정의적(affective)관점, Schumann(1975)의 사회문화적 관점, Rosansky(1975)와 Ausubel(1964)의 인지론적 관점 등이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조기 언어교육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거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언어학적 관점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경험주의 철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습득을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변형·생성문법학자들은 합리주의 철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것을 선천적인 언어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40년대 언어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을 내세웠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행동(verbal behavior)이 인간의 근육운동을 수반하는 다른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언어학습도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규정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모방하여 그것을 반복·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습관형성으로 간주했다. 또한, 구조주의 입장에서 모국어의 습득과정은 전달수단이 모국어 뿐이기 때문에 그 반복의 빈도가 높아 습관형성이 용이하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이미 확립된 모국어의 언어습관이 제2언어습관을 방해하므로 암기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배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어린이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Diller(1971:12)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Rivers(1968:73-74)도 "어린이의 언어학습은 순수한 모방의 문제인 것 같지 않다(Child language learning does not appear to be a process of pure imitation)"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변형·생성문법학자들은 Humboldt나 Descartes등이 주장하는 합리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천적인 언어능력이 있다고 보며 언어습득의 과정이 경험, 습관의 형성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하였다. Chomsky(1965)는 모든 인간은 어떤 언어이든 배울 수 있는 선천적 능력(innate ability)을 타고 났으며, 인간의 두뇌속에 언어습득장치(LAD)가 있어서 어떤 문화와 환경에 놓이더라도 거의 동일한 성취도를 가지고 그 언어를 습득하여 한정된 언어자료를 가지고도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msky(1965:32)는 LAD를 어린이만이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inherent) 능력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



위에서 보는 바처럼, 어린이가 어떤 언어의 언어자료에 접하게 되면 LAD가 자동처리하여 언어능력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된다는 것이다. 즉, LAD에는 태어날 때부터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이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입력에 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단 시일 내에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McNeill(1966:15-84)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이라면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언어를 익히든간에 대략 2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복잡한 언어의 기본적 사항을 대강 익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언어습득능력은 인간의 타고난 소질(predisposition)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옥로(1982:56-58)는 미국에 이민간 세 살짜리 어린이가 1년 후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통역역할을 한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어린이들의 이 LAD를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면 언젠가는 외국어 습득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비결을 영어교육에 응용하면 10여년간 영어를 배우고서도 미국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현 영어교육의 맹점이 개선될지도 모른다"고 조기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필자도, LAD의 존재여부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정명호, 1987:15), 언어의 학습은 유아기에 가장 활발하고 사춘기가 지나면 능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어릴 때 실시되는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적이라라고 생각한다.

2. 신경생리학적 관점

위에서 언급한 Chomsky(1965)의 LAD이론은 어린이의 제1언어 습득현상을 설명하는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LAD이론이 제2언어 및 외국어 습득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이론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이 LAD이론의 난관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였다. 이 결정적 시기 이론에 의하면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학습자는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어떤 생물학적 제약이 있으므로 제2언어 또는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즉 두뇌

의 측위화(lateralization)가 완성되는 사춘기 이후에는 대뇌의 유연성(plasticity)이 점차 낮아지고 언어영역(speech area)이 점차 굳어져 언어를 습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적시기 가설은 Penfield & Roberts(1959:36-70)에 의해 주장된 대뇌유연설(brain-plasticity theory)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Stern(1967:43-49)은 「Foreign Language in Primary Education」에서 외국어학습은 어릴 때가 가장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Penfield (1959)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두뇌에는 언어 습득의 생물학적 시간표가 있어서, 복잡한 언어기제를 통제하는 두뇌의 반구(hemisphere)는 사춘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유아기나 아동기에 발달한다. 어른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상실한 상태이지만, 어린이의 두뇌는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릴 때의 두뇌의 유연성을 잘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두뇌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워도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Penfield(1959:26)는 신경생리학자로서 실어증(aphasia)에 걸린 환자의 언어습관을 연구한 결과 사춘기 이전의 실어증 환자는 어려움 없이 언어를 회복하지만 사춘기 이후의 환자는 언어회복이 어려워짐을 관찰하였다. 즉, 사춘기 이전에는 두뇌의 언어담당 기능이 손상을 입은 반구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은 반구로 전이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뇌의 이러한 유연성(cerebral plasticity)이 사라진다는 것이다(A child who has lost the use of the hemisphere and has become aphasic can relearn language; adults do not have this capacity).

Lenneberg(1967:26-41)도 Penfield(1959)의 이론을 기초로하여 2세부터 사춘기(대체로 여자 어린이는 12~13세경, 남자 어린이는 13~14세경)까지가 언어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출생후 13세까지는 신경조직이 훨씬 유연한 반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언어적 유연성이 점차 상실되어 대뇌의 신경세포가 굳어지고 기능분장이 확립됨으로써 언어습득 능력도 점차 경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견지에서 Stern(1963:8)의 “어린이가 청소년이나 어른보다 더 잘 더 쉽게 언어를 배우므로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children learn languages better and more easily than adolescents and adults and that the place to start is in the elementary school.)”는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뇌의 중량이 갓 태어나서는 약 340g이며, 유아기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6세에는 성인의 약 90%에 달하도록 증가하고, 12세에는 1,270g으로 거의 완성되며, 14에는 1,360g으로서 100%에 이르게 된다는 Buhler와 Vierodt의 주장(김용래, 1985:47)을 감안할 때, 어린시절에 언어습득 능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뇌의 측위화로 인하여 사춘기 이후의 학습자에게 언어습득 능력에 변화가 생겨 언어습득이 어려워진다는 결정론은 많은 현대 언어교육 학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Schumann, 1975 ; Krashen, 1981, 1983 ; Ellis, 1985:201). 실제로 LAD의 감퇴설과 결정적 시기설은 많은 사춘기 이후의 학습자가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원어민과 같은 정도의 숙달도를 획득하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Ellis(1985:201)가 말한 바처럼, 성인의 언어습득이 어린이의 언어 습득만큼 완벽하지 못한 것을 LAD의 감퇴나 결정적 시기의 상실이라기 보다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에 기인 하는것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습득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사회·심리적 관점

최근 언어이론가들은 성인의 경우 제2언어 및 외국어 습득 환경에서 능숙한 언어능력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춘기 이후에 LAD의 무력화나 결정적 시기의 상실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고 (Taylor, 1974 ; Krashen & Terrel, 1983 ; Ellis, 1985:201), 오히려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있다(Schumann, 1975:242 ; Krashen & Terrel, 1983 ; Brown, 1980).

Schumann(1975)은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어린 아동은 청소년이나 어른보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의 영향에 민감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사춘기 이후의 언어 학습이 더 어려운 것은 신경생리학적 성숙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회·심리적 성숙의 변화가 외국어 학습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Schumann(1975:229-230)은 "사춘기에 가까워지고 개인의 개성이 확고해지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범을 따르기가 어려워진다 (As puberty approaches and the individual is concerned with consolidation of his personality, it apparently becomes more difficult for him to submit to the new norms which a second language requires.)"고 주장한다. Schumann(1975:244)은 MacNamara(1963:230)를 인용하여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 볼 때 호기심과 자기 현시욕이 강해 연령이 유사한 동료 집단 생활 속에서 실제 의사소통(real communication)에 참여하므로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반면에, 성인은 사회화(socialization)의 영

향으로 실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효과적인 외국어학습이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Oliva(1969:258)는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수치심을 덜 느끼므로 외국어를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어나 외국문화에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국어 학습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8~10세가 외국어교육을 시작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제안하고 있다(이완기, 1996:20).

Brown(1980:138)은 "모든 인간은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 자아(ego)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를 갖고 있는데, 점차 성인이 되어 가면서 특히 10대 전후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인 변화기를 맞이하여 자아방어심(inhibition)을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외국어 학습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방어적 억제심리가 낮은 어린시절에 외국어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Brown(1980:169)은 외국어 습득을 문화 동화(acculturation)와 연관지어, 어린이는 하나의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진 어른에 비해 문화적 탄력성이 더 크고, 이 문화적 동화의 단계를 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외국어도 더 빨리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Krashen et al(1979:574)은 외국어 교육과 시작 연령에 관한 방대한 연구물들을 분석·정리한 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른이나 나이가 든 학생은 처음 단계에서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비해 보다 빨리 외국어를 배우지만, 궁극적인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는 어린 아동이 더욱 유리하다(Adults and old children in general initially acquire the second language faster than younger children, but child language acquirers will usually be superior in terms of ultimate attainment.)"고 결론짓고 있다. Krashen의 이와 같은 결론은 정의적 영역이 외국어 습득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Krashen & Terrel(1983:37)은 언어습득과 정의적 요인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외국어 습득에서 장애요인이 되는 정의적 여과장치(affective filter)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사춘기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비록 정의적 여과장치가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거의 완벽하게 그 언어를 습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조기 영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언어학적, 신경생리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밝혀진 LAD론, 결정적 시기론, 사회·심리적 성숙론 등이 조기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확보해 주는 주요한 이론

들이지만 인지발달과 언어습득간의 관계도 중요한 논의점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인간의 인지발달과 언어습득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4. 인지론적 관점

스위스의 심리학자 Jean Piaget는 사람들의 인지발달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인지능력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며 이러한 인지능력은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발달한다. 또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할 때 동물과 같은 반사운동이 아니라 지적능력을 가지고 대처한다. 즉 유아기의 단순한 반사행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점차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과정으로 변화한다. Piaget가 설명한 인간의 성장발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감각운동기(The Sensorimotor Stage : 0~2세) : 이 기간에 영아는 감각과 운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전조작기(The Preoperational Stage : 2~7세) : 이 시기의 유아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상징놀이를 한다. 언어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의 아이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다.
- 구체적 조작기(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 7~11세) :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의존 개념이 발달하고, 자율적 도덕성을 지닌다.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면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 형식적 조작기(The Formal Operational Stage : 11세~성인기) :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사고에서 더 나아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 논리-수학적 사고를 한다.

이 중 어느 단계에서 외국어 습득이 시작되는 것이 가장 좋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Rosansky(1975)는 초기 언어습득에 있어서 어린이는 매우 자기 중심적(egocentric)이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한 번에 한가지 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분석력의 부족이 오히려 제2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처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학습자는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Ausubel(1964:421)은 어린이가 새로 배우는 언어의 자연스런 발음을 습득하는데 있어 어른보다 어느 정도 나을 뿐, 배우는 시간이 같다면 그 새 언어의 발음 이외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진보가 늦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usubel (1964)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되는 10~11세 전후를 외국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연관시키는 가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이완기 1996:26). Stern(1983)은 “어린이는 사회적 또는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언어습득에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성인은 의식적·인지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보다 쉽게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외국어 습득의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어를 배운 기간과 시작 연령 두 가지라고 주장한다. 외국어를 배운 기간이 오랏수록 전반적으로 언어의 유창성이 증대되고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정확한 발음의 습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나라 중등학교 6년간의 영어교육이 인지발달상 형식적 조작기에 시작되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심각한 교육문제의 하나로써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 상태에서, 영어교육의 시기를 초등학교로 앞당겨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는 환경적 여건만 충족된다면 두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시간수가 외국 어린이의 학습시간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전체 학습량의 증대로 인한 언어습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구체적 조작기에 시작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어린이가 사회적 또는 의사소통적 상황에 더 쉽게 몰입하므로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특히 발음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조기 영어교육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4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다. 일찌기 Doman(1964:39)은 “인간은 어린 시절에 다섯 개의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배울수 없다(It is during this period that he can learn to speak a foreign language, as many as five, which he at present fails to learn through high school and college)”라고 주장하였고, Rivers(1981:449)는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다(If spontaneous communication is the aim, then these long-lasting benefits from an early start are surely of considerable value, since they correspond to areas which are often the despair of high school and college instructors.)”고 주장함으로써 조기 영어교육을 옹호하였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나 최근 세계 조기 외국어교육의 동향에서 볼 때, 한국의 조기 영어교육 실시는 필요하고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에 반대하는 제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인 배경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다. 즉, 효율적인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할만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외국어 연수기관 설치, 교사 양성과 재교육, 교수 방법의 개발, 교육과정 정비, 교수-학습자료 개발, 과학적 교육시설 설치 등의 불비로 조기 영어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1995)이 조사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반대여론의 요지를 정리하면, (1) 문화 사대주의와 가치관의 혼란, (2) 초등학교 기초구축으로서의 국어교육 약화, (3) 타교과목 학습의 소홀, (4) 학습 부담의 증가, (5) 초등교육 전반과 기존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 여건상의 차질 발생, (6) 대도시와 농어촌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교육 격차 발생, (7) 과열 영어과의 초래의 우려, (8) 외국어 상황에서의 영어교육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반대여론도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적 훈련을 받은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주장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1997년부터 정규교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실시는 하되, 많은 부분에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 좀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필자는 세계 여러나라의 조기 외국어교육 동향과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의 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I. 세계 조기 외국어교육 현황

과학 문명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외국의 조기 외국어교육 동향을 고찰해 보고 이어서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의 실패를 살펴보겠다.

1. 외국의 경우

약 40년 전인 1954년에 UNESCO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외국어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한 후 조기 외국어교육은 각국

으로 파급되었다. Mackey(1967)에 의하면 미국은 1950년부터 지방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제도하에 스페인어, 불어, 독어 등을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1956년, 러시아는 1957년, 영국은 1959년, 독일은 1960년에 가르치기 시작했다. Stern(1963)은 이미 35년전에 그 당시의 자료를 통하여 조사대상 45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10세 이전의 아동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은 10대 훨씬 이전, 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초급 학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ivers(1981)는 전통적으로 여러나라에서 외국어교육은 11세~12세에 실시했으나 근년에는 그 나이에 실시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견해를 밝혔다(이혜란, 1995:4).

세계의 조기외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는 김진철·고경석·박약우(1993), 고경석(1993), 이혜란(1995) 등이 있으나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1995)이 조사한 「영어교과 신설을 위한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로하여 초등학교 외국어교육 실시 동향을 비교해 보겠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어교육 여건이 비슷한 나라와 우리나라와 여건은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언급되어지는 국가들의 외국어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 일본, 중국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이스라엘과 프랑스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1) 북한

인민학교 4학년(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고등중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주당 3시간씩 외국어로서 영어를 이수하고 있다.

2) 일본

도도부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정규수업시간에 영어수업을 하는 공립학교의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특별영어는 매주 2시간씩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혜란(1995)에 의하면, 1994년 시점에서 10여개의 공립소학교에서 영어교육의 실험적 수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년 후에 영어교육을 소학교부터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사립소학교나 사설학원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어떤 사설학원에서는 3살 어린이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3) 이스라엘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주 3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용영어 위주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3학년 매주 2시간, 4학년 3시간, 5~6학년 4시간씩 실시한다고 한다(중앙일보 1997. 1. 14). 특히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때부터 생존전략의 필요성으로 영어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대부분 국민이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졸업시 학생들은 1천 단어를 구사할 수 있다(우리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5백 단어의 두배다).

4) 중국

초등학교 영어수업의 경우, 1981년에 공포된 '전일제 5년제 소학교학계획'에서부터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경 등 대도시의 경우 절반 정도의 초등학교에서 4~5학년에 주당 3시간, 6학년(중학교)에서 5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북경의 초등학교 중 20%정도에서는 1~3학년에서도 주당 3시간씩 영어를 배우고 있다.

5) 프랑스

프랑스는 자국어에 대한 긍지가 높은 나라로서 외국어 사용을 금기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태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프랑스의 조기 외국어교육은 1989년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르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되었다. 이것은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1989년 조기 외국어교육을 실험적 방식으로 실시한 이후 1991~92년에는 목표로 정했던 수치(전국 초등학교 학생의 25%)를 넘는 학생들이 조기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국민학교 주당 수업시간은 총 26시간인데, 이 중 외국어 수업은 2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1시간(60분), 3~5학년의 경우(프랑스 초등학교는 5년제임) 일주일에 1시간 30분의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학년(중학교)에서는 주당 3시간(1시간 55분)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3월에 공포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외국어 시간은

국어 수업시간(주당 9시간)중 일부로서 제시되었고, 아직 교사 등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원하는 학교부터 실시하나 앞으로 필요화할 예정이라고 한다(한국교육신문, 1996. 11. 6).

이상에서 우리의 조기 영어교육 정책 결정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조기 외국어교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들 국가 외에 다른 나라들의 영어교육 실태를 요약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파키스탄 :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1학년 학생의 30% 정도는 주당 5시간씩 영어를 배운다.

홍콩 :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다.

태국 :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80%정도가 영어를 선택으로 배우고 있으며 주당 시간수는 2~3시간이다.

스리랑카 : 초등학교 3학년부턴 주당 3시간(40분수업)씩 영어를 배우고 있다.

네팔 : 초등학교 4학년부턴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라크 : 초등학교 5학년부턴 영어를 배우고 있다.

미얀마 : 초등학교 1학년부턴 영어를 배우고 있다.

필리핀 :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2학년부턴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초기부턴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도 : 영어가 제2공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주에 따라 다르나 초등학교 3~4학년부턴 주당 5~6시간의 영어수업을 받고 있다(8~10%의 학생은 1학년부턴 주당 6시간씩 영어를 배우고 있다)

말레이시아 : 초등학교 1학년부턴 240분의 영어수업을 받고 있다(화교계 학교는 3학년부턴 수업을 받는다).

요르단 : 사립학교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턴 영어를 배우고,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턴 영어를 배운다.

〈아프리카 국가들〉

케냐, 라이베리아, 우간다, 잠비아 : 초등학교부턴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가나 : 초등학교 4학년부턴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스와질랜드 :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독일 : 초등학교 3~4학년은 주당 1시간씩 영어를 배우고 있다(주에 따라서는 4학년에서만 영어수업). 5~6학년(중등학교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는 주당 5시간(250분) 영어를 배우고 있다.

스웨덴 :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4~6학년을 합쳐서 영어를 10단위 이수해야 함)

핀란드 : 초등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고 있다.

노르웨이 : 상당수의 초등학교에서 4~5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 초등학교 2학년부터 외국어 수업을 실시한다.

폴란드, 크로아티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외국어 수업을 실시한다.

2.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대개 찬성이나 반대나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최근에는 특활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조기 영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이전의 조기 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1994년 4월에 우남희 교수가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조기 영어교육 실태조사」, 1994년에 이루어진 최진황 등의 「국민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1995년에 이루어진 허경철 등의 「영어교과 신설을 위한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교내 실태와 학교외 실태로 나누어 조기 영어교육 실태를 살펴보자.

1) 학교내에서의 조기 영어교육 실태

허경철 등(1995)에 의하면, 전국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비율은 91.4%였다. 한편 우남희(1994)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내에서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77.6%였다. 최진황(1994) 등의 연구에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전체의 8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 300명중 29.3%에 불과했다(대도시

38%, 중소도시 32%, 농어촌 18%). 이것은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많지만 영어교육이 소수의 학생만 선발하여 특별부서의 하나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남회에 의하면, 지도교사 없이 방송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39.5%로서 제일 많고 특별활동의 영어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4.4%를 차지한 반면, 정규교과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18.6%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영어교육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에 관한 조사에서, 최진황 등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VCR이나 학교방송 등 시청각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어 교육의 내실에 있어서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숙(1988, 1990)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방송이나 VCR에만 의존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는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의 집중율이 30%가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교사들이 시청각 매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83%의 교사들이 '발음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등 스스로의 능력부족을 인정하는 답변은 제대로 된 영어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교사들의 양성이 급선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남회에 의하면,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97.5%가 한국인이고 2.4%가 영어권의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인 교사 중 71.3%가 비전공자임을 보여주어 실제로 영어에 대한 배경이 약한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진황 등의 연구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영어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를 조사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발행교재(특별영어)와 교육방송의 VCR자료의 사용이 과반수 이상(59%)을 차지하지만, 값이 비싸고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지 않은 시중 자료의 사용도 31%나 되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여 싼 값으로 전국에 보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차후 발행될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제작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이미 8개사 12종의 3학년 교과서가 제작되었지만).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학년은, 우남회에 의하면, 4학년부터인 경우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중의 3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학년 부터인 경우여서(26.7%) 조기 영어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편, 최진황 등에 의하면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80.3%가 주당 30~40분 이하의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주로 특별활동(주당 40분) 시간이나 수업외 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 졌음을 반영한다.

2) 학교외에서의 조기 영어교육 실태

우리나라 초등학교생 중 30%미만의 학생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가족에 의해서 영어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최진황 등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300명 중 50%의 학생이 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받고 있으며, 8.8%의 학생은 가족으로부터 영어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둘을 합치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는 학생의 2배 정도나 된다. 이 중 대도시에서는 78%, 중소도시에서는 68%가 학원 수강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는 8%만이 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보다는 학원에서의 영어교육이 더 번성했음을 의미하며 또한 농어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를 접할 기회를 상실하여 중학교에서의 계층간 지역간 영어능력의 불균형을 초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면적인 초등학교영어교육의 실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남희(1994)에 의하면, 현재 아동들이 받고 있는 학교외의 영어교육 형태로는 방문교사가 딸린 교재로 학습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학습지나 테이프 등의 교재를 가지고 아동이 혼자서 하는 경우는 18.1%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부모들이 기입한 현재 사용 중인 교재들의 목록을 작성한 결과, 109종의 상품화된 교재가 기록되었는데 이 중에는 외국에서 직수입되었거나 외국의 것을 개작한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한 많은 종류의 교재들이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며, 전문인으로 구성된 교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아동에게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는 영어권 국가에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이 67.9%,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22.6%이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이 참여하여 지도하는 경우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의 전공에 있어서는 46.3%가 영어전공교사라고 응답하였고, 21.3%가 비전공 교사라고 응답하였으며, 30.3%의 부모들은 교사의 전공을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는 현재 학교외에서의 영어교육 담당교사가 학교내에서의 담당교사에 비하여 영어전공자이거나 영어권 국가의 거주 경험자이거나 또는 영어원어민인 경우가 더 많아서 앞으로도 부모들의 사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남희(1994)에 의하면, 자녀의 학교외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대개 2~5만원 정도였고(41.6%), 2만원 미만이 27.4%, 5~10만원 미만이

26.5%였으며,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4.4%였다. 영어교육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교재의 비용은 10만원 이하 지출이 45.4%였고, 50~1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7.4%나 되었다. 교육시간은 대체로 주당 5시간 이하였으며(91.4%), 이중 주당 1~2시간이 5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영어교육의 시작 평균연령은 8.6세로 나타났고, 아동이 처음으로 배운 내용은 알파벳 중심의 쓰기가 51.6%로 가장 많았다.

한편, 1997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 결정은 학교외에서 한층 더 심한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가져왔다. 학부모들이 '늦으면 손해'라는 생각에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1996년 9월 교육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약 54만명의 초등학생이 학원수강이나 전화수강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음). 이러한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국감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영어교습비가 연간 4,500억원이고, 초·중·고생 영어교습비는 2조원을 넘는다고 함)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우남희(1994)에 의하면, 조기 영어교육 실태에 대하여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법위주에서 벗어나,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나왔고(21.6%),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 조기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이었다(20.4%). 이는 조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나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현실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조기 영어교육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혜란, 1995:21). 이와 같은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1992년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조사결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장의 97%가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995년 2월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 결과, 19세 이상 국민 1,000명 중 68%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또 88%는 영어실력을 개인, 기업,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1995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4,700여명의 학생, 교사, 교장, 장학사, 정부관료, 기업체 임원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 약 9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비·정돈하여 정규 교육과정 속의 과목으로 확립시킨 것은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적 국

가적 낭비를 극소화하며 또한 조기 영어교육의 세계적 현상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가치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IV. 한국 조기 영어교육의 성공 요인 및 바람직한 방향

필자는 지금까지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론적인 면과 외국 및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 현황을 살핌으로써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EFL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는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환경(ESL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과는 달리 영어학습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언어습득에는 세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언어습득장치(LAD)와 자연적 언어입력(natural input)과 언어의 필요성(language need)이 상호작용해야만 언어습득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시 LAD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언어입력과 언어의 필요성이 결핍되어 이론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안수용, 1992:95-100).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의 시기를 초등학교로 앞당기는 문제는 반드시 그 환경적 여건의 충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 여건이란 구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과정 정비, 영어담당 교사 양성 및 확보, 학습자의 특성을 감안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각급 학교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자료의 개발, 조기 영어교육의 취지에 걸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개발, 과학적 교육 시설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원래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은 복잡한 과정으로서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무한하지만,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환경적 요인들이 불비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기 영어교육을 서둘러 실시한다해도 오히려 통일성 없는 학습자료와 교재의 남발로 인한 학습자의 부담 가중, 좋지 않은 발음의 습득 및 교착화, 학습 동기의 조기 저하, 재정의 낭비 등 해악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교육정책에 의해 현실적인 일이 되었으므로, 한국 조기 영어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교육재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교육지표」(제4집)는 한국의 교육 여건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주고 있다(조선일보, 1996. 12. 26).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교육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우선 교육재정면에서 볼 때, 한국은 초등·중등·고등교육을 망라한 평균이 2천 7백 32달러로 OECD 평균치(4천 7백 62달러)보다 무려 2천 6백 30달러가 낮다. 이는 회원국 중 멕시코, 그리스, 체코, 헝가리, 터키 만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의 경우 33.2명으로 OECD평균 17.9에 훨씬 뒤지며 자료를 제출한 22개국중 최하위다. 일본은 19.2명, 뉴질랜드 20.2명, 덴마크 11명, 이탈리아 10.2명, 영국 20.7명이며 한국 다음으로 사정이 열악한 터키도 27.4명이다.(중등의 경우도 한국은 24.6명인데 평균치는 14명으로 역시 21개국중 최하위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예산은 98년까지 국민총생산액(GNP)의 5% 수준으로 높이드록 돼 있어 앞으로 1인당 교육비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의 올해(1997년) 교육예산은 교육재정의 GNP 5% 확보계획에 따라 작년보다 17.6% 많은 18조 3천 67억원(GNP의 4.8%)으로 국방예산보다 4조원이 많은 규모다(중앙일보, 1997. 1. 24). 여기에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교육예산 2조 4천억원을 합치면 올해 교육에 쓰이는 돈은 모두 20조 7천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투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정보화 등 각 분야에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첫째로 GNP 5% 교육투자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OECD 가입 선진국들을 미국 7%, 캐나다 7.4%등 평균 GNP의 6.1%(95년 기준)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둘째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계속적인 예산확보다. 'GNP 5% 교육투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98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 발전은 투자에 달려 있고 교육 사업은 장기적으로 투자된 후에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자칫 투자가 위축되면 애써 벌여 놓은 사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지방 교육비중 15개 시·도가 내는 2.6%전입금은 98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재론키로 규정되어 있는데 투자가 계속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영역별·과제별 투자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교육조직·인력 및 운영에서 낭비요인을

과감히 발굴해 제거하고 사업비 투자를 늘리고 특히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어 교육에 1백 22억원(96년 36억원)을 투자해 원어민 교사 1천명이 초·중·고교에서 살아있는 영어회화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화·세계화 교육정책에 걸맞는 일이라 할 수 있다(물론, 자격이 있는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야겠지만). 넷째로, 공교육비 재원 이외에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교육문제를 원만하게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국민이 한 해동안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규모는 공교육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일례로, 1994년 교육예산은 11조 5,595억원으로 GNP의 약 3.8%였으나 1994년 사교육비 총액은 17조 4,460억원으로 GNP의 약 5.8% 규모였다(1995. 5. 31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서).

2.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관련된 용어로 흔히 커리큘럼(curriculum)과 실러버스(syllabus)가 자주 등장한다. 커리큘럼이란 교육의 기본 철학이나 방향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서술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경우가 많다. 실러버스란 보다 구체적인 교육현장내에서 커리큘럼이 지향하는 일반적 목적이나 목표의 구체적 구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완기, 1996 : 129).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은 어떠한 목표하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며 목표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의 평가를 해야 하는가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과, 가르쳐야 할 내용 전체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세분된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와 학습요소를 상세히 기술하는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를 커리큘럼이라 하고 후자를 실러버스라고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최진황 외 3인, 1994:15).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서술한다. 그러면 교육부가 1996년 11월 1일 개정·공포한 초등학교 6차 신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5-7호)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총론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즉 영어를 정규교과로 신설하여 3, 4, 5, 6학년에 주당 2시간의 수업시간을 배당하고 1997학년도 3학년부턴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확정·고시하였다. 처음 제정된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언어교육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지도되되, 저학년에서는 문자인식수준으로 제한하고, 고학년에서는 음성 표현의 이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서 문어적 표현을 다루게 하였다. 어휘는 500낱말 내외를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놀이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어 교과에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영어 교과서는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특성으로 2종도서(검정)로 개발하기로 확정하였다.

지금까지 필자는 초등학교 신교육과정과 영어 교육과정에 관하여 약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겠다. 우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례로, 교육부로부터 조기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기초연구 및 교육과정시안 개발을 의뢰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허경철 팀(1995)은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육과정·자료의 개발,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개발, 영어담당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 영어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비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조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최소한 3~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잠정 결론이므로 따라서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 1997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1999년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음(허경철, 1995:165)에도 불구하고 굳이 1997년에 시범 실시가 아닌 전면 실시가 결정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의아스럽다. 허경철 팀이 조사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과반수가 여건을 제대로 갖춘 후에 도입하자는 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약 43%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후 도입을 하고 그 후 보완해 나가는 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우선 시작해 놓고 차차 여건을 갖추자는 안에는 10%정도만이 찬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교과의 도입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은 바람직한 영어교과 도입시기를 연도로 구분해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1%가 2001년이 도입의 시기로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1997년이 바람직하다고 반응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논의할 문제는 영어교과 실시 학년과 학년별 영어교과 시간 배당에 관해서이다. 허경철 팀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영어수업을 4학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고(32.2%), 다음으로는 3학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21.8%). 그러므로 중학년(3, 4학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4.0%)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4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 시기가 국어 학습의 기초가 어느 정도 마련되고 학생들이 지적·신체적으로 성숙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의 목표가 영어에 대한 관심, 흥미, 자신감의 배양과 기초적인 생활영어의 이해와 표현에 두고 있음을 볼 때, 그리고 이수할 총 어휘수가 500낱말 내외임을 감안할 때 한층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할 것은, 4학년부터 시작할 경우 주당 시수를 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즉 EFL 상황에서는 이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입력(comprehensible and natural input)이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조금이라도 더 집중적인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영어교과시간 배당에 관하여 또 한가지 명심할 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으로 초·중등교 영어수업시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김인석(1996)은 1996년 8월 말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7차 신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토론한 바, 2000년대부터 적용하게 될 7차 신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당 2시간씩 하기로 되어있는 영어수업 시간수를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으로 줄였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주당 4시간씩인 시간수를 3시간으로 줄였음을 확인했다(중앙일보, 1996. 10. 23). 그는 주당 1시간으로는 입체적인 교과편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어학습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초등학교 3, 4학년에 주당 1시간씩 해서 효과를 얻지 못할 바에는 아예 3, 4학년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말고 그 대신 5, 6학년의 시간수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릴 것을 제의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1997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시간수를 1시간씩 줄이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착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듣기와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읽기와 쓰기를 하지 않고 듣기와 말하기만 1~2년씩 계속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여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4학년에서 '알파벳을 식별하여 읽는다'로, 5학년에서 '영어의 알파벳을 쓰고 익힌다'로 규정돼 있다. 이것은 영어 교육내용과 방법의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알파벳을 기억하기까지는 길어야 한 달도 안 걸리고, 또한 학생들이 EFL상황에서는 듣기, 말하기와 더불어 읽기, 쓰기를 병행하는 것이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바람직스럽기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요망된다 하겠다. 요즘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전체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학습

초기 단계부터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모두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이화자, 1990 ; 하광호, 1996). 필자의 의견으로는 3학년 과정에서 2개월정도 지난 다음에는 알파벳의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허경철 팀이 면담한 교사들도 “학생들이 읽는 것을 배움으로써 간판이나 책, 컴퓨터 등에 나오는 단어들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영어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휘문제다. 어휘는 초등학교에서 총 500개 내외의 낱말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100개 내외, 4학년 100개 내외, 5학년 150개 내외, 6학년 150개 내외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800개의 기본 어휘를 제시하고 400개의 낱말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 과정상으로는 기본 어휘표에 제시되지 않은 낱말 100개내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장치 세계화를 담당할 국제인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보나 외국의 예(이스라엘 1,000단어)에서 보나 어휘력의 확장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3, 4학년의 경우 1년 68시간의 영어수업시간이 주어지니 매시간 평균 1.47개의 새 단어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 셈인데 이를 2~3단어로 확장해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검토하여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은 법령으로서 교과교육의 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규정하는 외에 교과서 집필자에게는 교과서 개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주고, 교사들에게는 수업목표와 수업내용, 평가의 방향 등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면 이는 교과교육 관련자 전체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 명쾌하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이는 교사와 교과서 집필자는 물론 이들을 통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최진황, 1994:60).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첫째로, 목표와 방법, 평가부분은 교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내용 부분만은 학생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학생 중심 영어교육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목표를 가급적 학생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둘째로,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을 규정한 것과 광범위하고 개략적인 활동을 규정한 것이 뒤섞여 있다. 이를 테면, 4학년 [듣기]②항의 “간단한 말을 듣고 색깔, 기수, 서수, 모양을 찾는다”는 서술은 전자에 해당되고, 4학년 [읽기]①항 “문자를 보고 인식한다”는 후자에 해당된다. 셋째로, 내용의 서술에서, ‘말’과 ‘대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듣기]는 3학년에서는 ‘소리’와 ‘쉽고 간단한 말’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였다. 또 6학년에서는 '간단한 말'과 '.....에 관련된 말' 혹은 그냥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말'이란 용어는 단일 문장 수준의 음성언어를, '대화'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문장을 교환하여 말하는 것으로 상징할 때, 5학년과 6학년 [듣기]에서는 대화에 대한 서술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완기, 1996:179).

3. 교재(교과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 정의된다. 사실상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가용한 교육과정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Lado(1988:144)의 지적처럼 교과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 자질있는 교사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The text is a tool, not a replacement for a qualified teacher), 좋은 교과서는 자격이 어느 정도 미비된 교사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허경철 조사팀(1995)이 조사한 바로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90% 이상이 교과서의 내용대로 가르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도 86.2%가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다음 문제는 교과서가 필요할 경우, 1종, 2종, 인정, 자유발행 중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세계의 교과서 발행 추세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공인 교재가 없고 학교의 재량권으로 선택하거나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은 검인정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1종(국정)이었으나(허경철, 1995) 교과서 정책 개선 방침(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1995. 2. 28 및 7. 20)에 의한 교과서 발행의 개방화로 2종(검정)으로 확정되었다.²⁾ 그리하여 교육부는 1995년 11월 「교과서 1권, 교사용 지도서 1권, 오디오 테이프 4개, 비디오 테이프 16개」가 한 세트를 이루는 2종 교과용도서 점검실시공고를 냈다. 1차 심사일인 1996년 7월 18일 까지 33개 교과서 업체가 8개월만에 45종의 교재샘플(교과서 지도서 1권, 오디오 테이프 1개, 비디오 테이프 2개)을 만들어 이 중 10개사의 교재 14종이 선정됐다. 2차 심사일은 1996년 10월 2일로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사는 불과 2개월여만에 이미 제출한 테이프 3개를 수정 보완하고 나머지 테이프 17개를 새로

2) 이는 교과서 점검제도가 개선되어 교과목당 8종이내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종전의 상
대평가제가 절대 평가제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만들어 제출한 셈이다. 199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2개월이면 3류 예로물 비디오 하나 제작하는데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교재 제작 실태를 추궁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비디오 테이프는 2개만 제작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해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동아일보, 1996. 10. 4). 이는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채 처음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준비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 관계자는 1996년 10월 13일 '초등학교 영어교육 연기 검토'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현재 10개사에서 제작중인 영어교재가 촉박한 제작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제작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영어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준비도 미비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1996년 10월 14일 이스라엘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실태를 둘러보고 돌아와서 '97학년도 초등학교 영어교육 반드시 실시'를 분명히 했다(중앙일보, 1996. 10. 15). 2차 심사결과 19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영어교육에 쓸 교재는 8개사의 12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특히 부속자료인 비디오 테이프에서 상당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사가 김한길 의원과 공동으로 8개 출판사의 비디오 테이프 한 개씩을 입수해 미국인 영어교육전문가 2명, 영어교육을 실시 중인 초등학교 교장, 교육공학박사 등과 분석해 본 결과 사물과 영어단어가 맞지 않거나 잘못된 표현이 적지 않았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도 상당히 더더 학생들이 매주 2시간씩 2주일동안 3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배우는 단어는 평균 6개정도(1시간에 1.5개)에 불과하다(중앙일보, 1996. 10. 18.). 이같은 문제점은 심사과정에서도 드러나 이번에 합격한 대부분의 출판사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11월 20일까지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다. 최종 수정작업을 마친 12종의 교과서는 12월 중에 완성본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되었고, 각 학교는 1997년도 1월 중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였다. 필자가 이렇게 교재의 제작, 심사, 선정과정을 상세히 논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199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의 요청으로 조기 영어교육 시작 시기에 관해 연구한 결과 "교재개발과 우수교사 양성에 대해 최선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합리적 시기는 1999년이라고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무시한채 '1997년 실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졸속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론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계적 추세면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나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사상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를

교재로 도입하면서 공고 당시 판권 문제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디오 테이프의 판권은 제작자들에게 있다. 교육부에서는 테이프를 교실마다 1개씩만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테이프를 따로 구입할 경우 공교육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사교육 비로 전가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공고 당시 제작비를 일부 부담하고 판권을 가져왔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이므로 아쉬움이 크다. 셋째로 수업은 교과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여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교사와의 상호활동(interaction)을 결여한 수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1996년 10월 15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년 3학년 예상 학급수는 16,337 학급인데 VCR확보대수는 15,763대이고 TV와 녹음기는 16,337대라고 한다. 이는 거의 모든 학급이 VCR과 녹음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혹시라도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 간에 상호활동 없이 기계에만 너무 의존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흥미 상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사의 수업진행 기술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교사는 수업을 교과서,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여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하되 재미있는 놀이와 노래를 곁들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3학년 영어 교과용 도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 : 130쪽 정도, 원색 4도 인쇄, 전체 16단원(학기당 8만원), 학년 단위, 한 단원 4시간 수업(1시간 40분), 그림 위주
- 교사용 지도서 : 200쪽 정도
- 녹음 테이프 : 1시간용 × 4개(학생용)
- 비디오 테이프 : 30분용 × 16개(교사용)

4. 교사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 영어교육을 잘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이다. 다른 요인들 — 예를 들면, 좋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질 높은 다양한 종류의 교수-학습자료개발—은 돈만 있고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2~3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훌륭한 교사만 있으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양성은 돈이 있고 국가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영어교사를 확보하면서 자격을 갖춘 교사를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첫째로 초등학교 영어교

사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둘째로 초등학교 영어 담당 교사의 확보 및 양성 방안을 논의해 보고, 셋째로 원어민 교사 활용 방안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겠다.

1)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자격요건

이완기(1996:84-86)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전문성을 띠고 있으므로 결국 초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자격 요건을 첫째로 영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사용자(English language user), 둘째로 학습자와 학습내용에 적합한 교수방법의 원리와 그 적용방법·절차 등을 거의 통달한 영어 교육자(English language teacher), 셋째로 가르치는 언어 즉 영어의 발음, 어휘, 문법, 담화 등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영어 분석자(English language analyst), 넷째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습 관리자(learning manager)로 들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 중에서 언어 분석자의 요건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이래 지금까지 충분히 해오던 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언어 교육자와 학습 관리자의 요건도 교육대학교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나 영어 사용자의 요건은 충족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기에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내에서도 영어 사용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서 허경철(1995)이 제시한 영어 사용자(language user)의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듣기 : 교양있는 모국어 화자가 일반적인 화제에 대해 신중히 발음하여 이야기 할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말하기 : 준비된 화제에 대해서 더듬거리지 않고, 외국여행에 필요한 정도의 보통 표현을 사용하며, 모국어 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말하는 능력
- 읽기 : 특수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고 비전문적인 산문의 뜻을 직독직해하는 능력
- 쓰기 : 교실환경에서 구두 발표되는 문장이나 문단을 정확하게 쓰고, 또한 짧고 간단한 편지를 쓰는 능력

- 문화 : 외국의 지리, 역사, 문학, 예술, 사회생활, 현대 문화 등에 관해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
- 적성 : 언어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이나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민찬규(1996:76)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할 교사는 전담교사가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첫째로 아동이라는 특수집단을 다룰 수 있는 인성, 둘째로 영어를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 능력, 셋째로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시킬수 있는 교수 기술, 넷째로 영어와 영어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 등의 자질과 능력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은 영어 사용자로서의 능력이며, 이는 단 기간내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초등학교 영어교사 확보 및 양성

이상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1997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성패를 결정할 영어담당교사의 확보 및 양성방안을 살펴보자.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확보 및 양성은 단기 방안과 장기 장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 방안에 해당되는 것은 현직 교사를 120시간 연수하여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고, 장기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대학교 내에 영어심화반을 만들어 21학점의 영어 학점을 이수케하여 영어담당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찬규(1996:97)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사를 현재와 같이 이론과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120시간의 연수나 21학점의 심화과정으로 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 임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1997년에 영어지도도를 맡아야 할 3학년 담임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대하여 살펴보자.³⁾ 교

3) 1997년에 시작되는 정규교과로서의 영어교육은 담임교사가 맡는다. 교육부는 당초 전담교사제로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전국에서 3천여명의 엄청난 교사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영어만 가르치는 전담교사를 둘 경우 인사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방침을 바꿨다. 1997년에 영어지도도를 맡아야 할 3학년 담임교사 인원은 전국 5천 7백 32개교에서 1만 6천 7백명에 이른다(중앙일보, 1996. 10. 5).

육부가 발행한 홍보자료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렇게 이루어집니다」(1996. 11. 28)에 의하면,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자원은 '82년부터 실시해 온 특활영어 수업으로 축적된 경험과, 92년부터 실시해 온 특활 영어 연수, 그리고 1996년부터 확대 실시해 온 영어연수와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자율 연수 등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홍보자료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5년 이전에 이미 10,642명이 확보되어 있음.
- '96 상반기 초등 영어 연수 이수자 : 9,263명
- '96년도 하반기 연수 예정('97. 1) : 7,699명
- 기 영어 연수 이수자 중에서 학교당 1교사씩 선발하여 심화연수 실시('97. 1) : 5,977명

교육부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미 전국 초등학교 3학년 학급을 담당할 담임교사(영어교사)가 양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인데, 질적인 면에서도 과연 자신감을 가질만 한지는 의문이다. 영어담당 교사 연수는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되었는데, 시·도교원연수원 등 자체 연수기관과 인근 대학에 위탁해 실시되었고 총 연수시간은 1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97년 1월 6일~30일에 실시된 경기도 교육청 주관 「영어교육 기본과정 연수」에 의하면, 120시간 중 80시간이 원어민을 통한 영어회화 시간이었고, 40시간이 영어지도법에 관한 것이었다. 한동안 영어를 접촉하지 못했던 교사들에게 80시간의 영어회화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여 어린이들에게 듣기 및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인중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은 학년간 그리고 학교급별간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을 도입하려면 전체 초·중·고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10년도 모자랄 엄청난 작업을 시험단계도 거치지 않고 1년만에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96. 10. 14). 결론적으로 단기 방안으로는 교사문제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초등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영어교사를 양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1997년 1월 17일 초등학교 교과전담 실시 대상과목에 현행 체육, 미술, 음악 외에 영어를 추가하는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을 부기해 둔다(한국교육신문, 1997. 1. 29).

다음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양성기관에서 계획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장기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교육부는 1996년 10월 20일 전국 11개 교육대에서 1997년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에 포함하여 앞으로 모든 예비교사들이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원어민 교수를 교육대학교마다 2명이상 추가로 배치하고 학교별로 영어교수 배당비율을 확대하며, 학생들에게는 영어심화과정(21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세계일보, 1996. 12. 21).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교육대 영어교육 강화책으로 모든 학생이 12학점 이상의 영어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장차 영어 전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영어심화과정에서 21학점 이상의 영어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영어심화반의 개혁여부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영어심화반은 심화반이라고 하지만 겨우 21학점 정도만 영어 학점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영어교사를 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경우 90학점 정도의 영어 학점을 이수시키고도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더욱 자명해진다. 문제는 현재 교육대학에서 영어심화과정을 늘리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늘릴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그 운용상 총 학점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대학교는 교수, 교육과정, 시설 등의 여건을 정비하고 학칙을 개정해야만 우수한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50~60의 영어 학점을 이수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허경철, 1995:201). 한편,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임용고사에서 영어 기능의 숙달 정도를 검정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예비교사에게 별도의 자격증이나 급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우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1997년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영어교과에 한해 원어민을 활용한 듣기, 말하기 등 생활영어 중심으로 실기능력을 평가하기로 했고 배점비율도 종전 20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한국교육신문, 1996. 11. 13). 이러한 시도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어 사용자(language user)로서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켜 장차 중고등학교 교실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새 바람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총체적 인간 형성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과전담제의 형태로 그들의 영어교육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지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양성은 교육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학에서도 우수한 영어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원어민 교사 활용 방안

정부는 1997년 외국어 강화 예산으로 1백 22억원(96년 36억원)을 배정하여 1천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청하기로 했다(한국교육신문, 1997. 1. 15). 그러나 일본의 경우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 4,000명의 원어민 교사가 영어 수업을 맡고 있다(최진황, 1994).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우리의 경우도 국가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좀 더 많은 원어민 교사를 초청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시도해 보는 것도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듯하다. 최정현(1996:15~17)은 서울 잠신고 교장으로서 원어민 교사 1명을 1995년 9월부터 배정 받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실시한 바, 원어민 교사 배치 활용이 주는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장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영어회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둘째로, 학생들이 외국문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셋째로, 기존의 영어수업이 독해 위주의 입시 교육이었던 데서 비롯된 파행적 수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충해 주고 있다. 넷째로, 영어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켜야겠다는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들의 영어회화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단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어 원어민 교사의 개인적인 자질이 문제이다. 둘째로, 원어민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상 문제가 있다. 셋째로, 균등한 영어회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에서 평가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용)의 문제가 있다(학교에서 60만원+교육청에서 20만원=80만원). 이 중에서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원어민 교사의 교육자적 자질과 자격의 문제이다.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군 전체의 영어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지역 전체 영어교사와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김해경)가 1996년도에 두 번의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만났던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한명도 대학에서 TEFL이나 TESL을 전공한 자가 없었다. 원어민 활용 영어수업과 연수의 성패는 유능하고 자격 있는 영어 원어민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만큼 교육부(현재 원어민 교사 초청 기관임)는 원어민 초청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제언한다.

5. 교수-학습 방법

한국 학생의 초등학교 시기는 대개 만 7세부터 12세까지이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9세~12세) 학생은 Piaget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고, 언어 발달 정도로 보아 문법이 거의 내재화되어 자신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교육과정의 「항목」에서는, 이 시기를 성장과정으로 보아 언어를 인식하고 습득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은 아직 어리고 영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언어 교육을 주로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법은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즉 초등학교 학생은 자기 실생활의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하고 호기심이 강하므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과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은 쉽게 배우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하므로 교수-학습에 반복학습과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며, 시청각 교육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영어교과 지도방법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교수-학습 활동의 계획

단위 수업시간 40분 동안에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전체 활동, 소집단 활동, 짝 활동, 게임, 놀이, 노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단계별로 다양하고 흥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청각 자료의 활용

각종 시각 자료, 청각 자료 및 시청각 자료 또는 기구 등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뿐 아니라 교사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녹음 테이프, 비디오, 컴퓨터 등의 이용은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을 반복 되풀이하여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성언어와의 접촉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3) 분단 활동(소집단 또는 짝 활동)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를 쉽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려면 짝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주로 노래와 놀이 중심의 학습을 하는데 이것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집단속에서 또래들과의 상호활동(interaction)을 통하여 말을 익히고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화되어 감으로 분단 활동을 통한 학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4) 놀이 중심의 동적인 학습

학생들이 학습 활동의 주역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활동을 이끌어 가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사의 설명만을 듣고 지식을 축적해 가는 과거의 정적이고 수동적인 교사 중심 학습 형태를 탈피하여 동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항에 관한 놀이나 게임 등이 빈번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 자신들의 취미, 운동, 가족, 음식, 신체부분 등에 관한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교실 환경의 조정과 학생집단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

5) 오류 수정의 최소화

학생들이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발음을 잘 못하고, 의미와 구문을 잘 몰라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또한 필연적인 학습과정이다. 그러므로 발화 중의 오류는 질책이나 즉각 수정을 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발음이나 구문의 정확성 보다는 표현의 유창성이 의사소통을 위한 보다 나은 길임을 알고, 학생들이 발화 중에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 교사가 가급적 수정을 피함으로써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또는 상호간에 오류 수정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교사의 수정행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발화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6) 교사의 수업 영어 사용

영어교사가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영미인이 아닌 이상, 원어민과 같은 영어를 할수는 없으나 교실에서 학

습 활동을 지시하고 수업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동작 영어, 수업 영어, 교실 영어 등의 사용은 EFL환경에서 언어입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언어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영어로의 학습활동 진행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 외에 많은 영어 듣기 기회를 주며 또한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의욕을 증진시켜 준다.

7) 문자지도의 최소화

초등학교 영어에서 문자교육에 비중을 두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글씨, 단어, 문장을 쓰거나 철자를 암기하는 동안에는 영어를 듣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는 음성언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문자의 읽기와 쓰기 지도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의 다른 의견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8) 내용의 재구성

교사의 지나친 교과서 내용이나 목표에의 집착은 자칫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과 의욕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 교사 중심의 내용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과정 위주 교육을 지향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는 교사의 판단과 학습지도 기능의 절충식 운영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내용의 재구성도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교실 상황에 적절한 대처 능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6. 평가

평가는 앞으로 더 나은 수업을 위하여 이미 행한 수업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라는 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학습평가는 통상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라는 개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시 유의할 점은, 첫째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로 학습한 내용을 음성언어 중심으로 평가되고 고학년에서는 문자언어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로 평가는 수업종료시에만 행하지 말고 평상시 수업과정 중 학생의 이해 및 참여도를 종합하여 등급이나 순위대신 '매우 잘 합니다' '잘 합니다' 등의 서술적 형식으로 기록하고, 넷째로 평가 결과는 개별지도 및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7. 교육 시설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영어교육에서 교육 시설은 영어 학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려면 이에 맞는 교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교재가 되는 책과 칠판과 분필에만 의존하는 수업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미래 사회가 과학화·정보화 사회라면 교육시설의 과학적 활용이 장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어교육을 위해 테이프, 비디오, 컴퓨터 등의 보조 교구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교육에서의 보조교구의 이용은 문자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식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학습 동기 유발을 촉진시키고, 교실에서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반복하여 활용하기가 쉬우며, 동일한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수업을 표준화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주고 자연스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쉽게 대할 수 없는 정확한 음성을 무제한적으로 들을 수 있고 외국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한 동안 회자되던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육 시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교육에 있어 시청각 기재를 활용하여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끝으로 필자는 교육시설면에서 두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원활한 의사소통 활동을 위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현재의 반으로 줄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다목적용 영어교실을 학교에 하나씩이라도 설치한다면 영어교육에 효과가 매우 크리라는 점이다. 각 교실에서 다목적용 컴퓨터(multi-media)를 활용하여 듣기 연습, 듣고 말하기 연습, 의사소통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다목적용 영어교실을 설치하여 영어에 관한 많은 자료와 보조 교구를 이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필자는 1997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초기 영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조감해 보았다. 첫째로, 초기 영어교육 타당성을 이론적 배경-언어학적, 신경생리학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고, 둘째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초기 영어교육 현황을 조사해 보았고, 그리고 셋째로 초기 영어교육과 관련된 요인들을 점검한 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각 요인들이 지니고 있는 결점들을 사실 그대로 지적하였다. 여기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은, 현재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영어교육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초기 영어교육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초기 영어교육의 성패는 이론적 측면의 타당성 여부에 의존한다기 보다 환경적 요인의 준비여하에 달려있다는 점과,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997년에 초등학교 초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교육환경 — 재정, 교육과정, 교재, 교사, 교수·학습방법, 평가, 교육시설 등 — 이 성숙치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초기 영어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각 요인별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재정〉

- 교육재정은 OECD가입 정식 회원국의 평균치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교육재정은 영역별, 과제별 투자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 막대한 사교육비가 학교안으로 끌어들이지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 6차 신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작연도가 199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여건 준비상 불합리하다.
- 초등학교 영어교과 실시 학년과 시간 배당은 재고되어야 하나 시간수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 읽기 및 쓰기를 1-2년씩 미루지 말고 듣기 및 말하기와 병행하여 지도해야 한다.
- 어휘수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폭을 확대해야 한다.
-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교재〉

- 교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졸속 제작되었으므로 차후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요한다.
- 보조교재인 비디오 테이프의 판권은 교육부에서 소유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보조교재인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잘 활용하면서도 교사와 상호활동(interraction)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교사〉

- 초등학교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서 현직 연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장기 방안으로서 교육대학교 영어심화과정은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전담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 원어민 교사를 더 많이 초청하여 교실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원어민 교사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수-학습방법〉

- 교수-학습활동을 목표에 이르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있고 생동감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
- 분단 활동(소집단 또는 짝 활동)으로 또래들끼리 상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유창성을 길러 의사소통능력이 개발되도록 오류수정을 최소화한다.
- 언어 입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사는 수업 영어(교실 영어)를 사용한다.
- 교사는 교과서 내용과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융통성있게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평가〉

-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 시행되는 시험의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문자언어보다 음성언어 중심으로 평가한다.
- 수업과정중에 학생의 이해 및 참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평가 결과는 개별지도 및 교수-학습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한다.

〈교육시설〉

- 교육시설의 과학적 활용이 고려된 시청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학급당 학생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
- 다목적용 영어교실을 설치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 교육청.(1997). 「영어교육 기본과정 연수」. 수원.
- 고경석.(1993).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영어교육」, 46, 165-187.
- 교육부.(1995). 「국민학교 교육과정 - 총론, 영어-」.
- 교육부.(1996).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홍보자료.
- 김인석.(1996). 초중등교 영어수업 더 늘려야. 「중앙일보」 (1996. 10. 23).
- 김증자.(1997). 영어 이데올로기. 「한국교육신문」 (1997. 2. 19).
- 김진철, 고경석, 박약우.(1993). 「국민학교 영어교육 - 이론과 실제-」 서울:개문사.
- 민찬규.(1996). 국민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 「응용언어학」, 9-10, 71-86.
- 배두본.(1995). 한국의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발달. 「영어교육」, 50-2, 151-180.
- 안수용.(1992). EFL환경에서의 영어 조기 교육. 「영어교육」, 43, 83-112.
- 우남희.(1994). 한국의 조기 영어교육 실태조사. 199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강연 발표논문.
- 우남희, 이종희.(1996). 영어교육 조기화의 문제점 분석. 「응용언어학」, 9-10, 137-152.
- 이옥로.(1982). LAD와 조기영어 교육. 「영어교육」, 23, 77-91.
- 이완기.(1996). 「초등영어교육론」. 서울:문진당.

- 이재희.(1995). 국민학교 영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응용언어학』, 8, 37-64.
- 이혜란.(1995). 영어 조기교육 현황조사 및 앞으로의 방향. 『응용언어학』, 8, 3-35.
- 이화자.(1990). 조기 영어 학습자를 위한 Whole Language Approach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40, 57-92.
- 임병빈.(1996). 교실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을 통한 영어교육 향상방안. 『응용언어학』, 9-10, 191-203.
- 정명호.(1989). 『조기영어교육론-현장 실험을 중심으로-』. 서울:한신문사.
- 최정현.(1996). 원어민 교사 배치가 외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론』, 36, 15-18.
- 최진황.(1994).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 개선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_____.(1995). 학교영어 교육의 개혁방안. 『교육월보』, 166, 24-28.
- 하광호.(1996).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서울.
- 허경철.(1995). 『영어교과 신설을 위한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usubel, D.(1964). Adults vs childre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Modern Language Journal*, 48.
- Brown, H. 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hird edition.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Diller, K. C.(1971).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Department of english, Harvard University.
- Doman, G.(1964). *How To Teach Your Baby To Read*. New York: Random house, Inc.
- Eills, R.(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D. & Terrel, D.(1983). *The Natural Approach*. Oxford: Pegamon press.
- Krashen S. D., Long M. A. & Scarcella R. C.(1979).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 Quarterly*, 13.
- Lenneberg, E. H.(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McNeill, D.(1966).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and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a Psycholinguistic Approach*. Cambridge: The MIT press.
- Oliva, P. F.(1969).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Ea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enfield, W. & Roberts, L.(1959).*Speech and Brain Mechanism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vers, W.(1981).*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Secon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ansky, E.(1995). The critical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language : some cognitiv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6.
- Schumann, J. H.(1975). The acculturation model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 C. Gingras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Arlington :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Stern, H. H.(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